

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1. 2. 25.(목) 14:00 (총 3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예 보 과	담당자	과장 김용상 사무관 한명주	전화번호	062-720-0332

남해안 매우 강한 바람, 높은 물결 주의

- 25일 밤~28일 남해안 중심 시속 90km 이상 강한 바람
-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 등 시설물 피해, 선박 안전사고 주의



[2월 26~28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]

-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김금란)은 오늘(25일, 목) 밤부터 28일(일) 새벽까지 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, 각종 피해 대비에 대한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정보를 발표하였다.

[기압계 전망]

-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까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저기압, 북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광주, 전남은 동풍의 영향을 자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.
- 남북으로 서로 다른 기압계가 배치되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차가 커지겠고, 이로 인해 형성된 매우 강한 동풍의 영향과 함께 해상에서도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분석했다.

[강풍/풍랑 전망]

- (강풍) 점차 동풍이 강해짐에 따라 전남남해안은 25일 밤부터 최대순간풍속이 시속 90km(초속 25m)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지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.
- 특히 26일 오전~27일 새벽에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고, 28일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지기 때문에
-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, 건설현장, 비닐하우스, 조립식 지붕 등 시설물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고, 강풍에 날리는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에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- (풍랑) 현재, 서해남부남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5일 밤에는 남해서부전해상에서 시속 35~65km(초속 10~18m)의 강한 바람과 함께 2~4m의 파고가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.
- 특히, 내일(26일) 오전부터 모레(27일) 사이 남해서부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대 6m 이상으로 매우 높아져 풍랑주의보가 경보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.
- 이에 따라 풍랑특보가 발표되는 기간은 해상의 선박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, 양식장 피해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.

[강수 전망]

- 25일 14시 현재 광주, 전남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, 26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예상강수량(25~26일): 전남남부 10~40mm / 광주, 전남북부 5~20mm
- 특히, 기온이 낮은 산지(지리산과 무등산)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거나 눈이 조금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.
- 한편, 3월 1일(월)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광주, 전남에 비가 예상되고 있지만,
 - 저기압의 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강수 집중구역과 시기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며, 앞으로의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.